

절세위인들과 조선의 청년들

주체112(2023)년

차 례

머 리 말 4

1 5

화전의 언덕에서 5
혁명활동을 청년운동으로부터 7
혁명의 전위 8
《공청가》에 비낀 넋 8
행군길에 열린 청년동맹지부회의 9
오라! 모이라! 단결은 힘이다 10
청년들의 애국열의를 귀중히 여기시고 11
미래의 조선의 주인공들 12
《천리마를 타고가는 첫 부대》 13
청년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고무해주시며 13
장래문제까지 걱정하시며 14
몸소 가르쳐주신 활동방향 15
라지오와 농업기술도서들도 보내주시며 15
대회장에 울려퍼진 환호성 16
간곡한 당부 16

2 18

조선혁명의 첫 세대 영웅들 18
최대한으로 내세우고 최대한으로 사랑하라! 19
조선로동당의 선봉대, 돌격대 20
자랑높이 휘날리는 속도전청년돌격대기발 21
최고사령관의 별동대 23
청년절이 제정된 사연 23
손수 제정하여주신 청춘제복 24

청년조직은 당의 령도를 받아야만 당의 후비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고 하시며 24
온 나라가 알고 세계가 알도록 25
혁명위업계승의 불길이 되라고 25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조직으로 26
《청년들을 사랑하라!》 26
《청년전위》 27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28
잠시라도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 28
청년중시의 사랑속에 성장한 녀성일군 29
청년들에게 더 많은 책을 공급해주어야 한다 30
한날한시에 받아안은 은정 30
준공식에 참가한 선남, 선녀 31
혁명대학을 나왔다고 할수 있다고 하시며 31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 32
금방석에 올려놓아도 아까울것이 없다 32
3 34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34
총진군대오의 척후대 35
참된 애국자들로 내세워주시며 35
중대는 군인들의 정든 집 36
전선에서 보내주신 축하문 36
조선로동당의 큰 자랑 37
감나무중대에 베푸신 특혜 38
참다운 애국자, 영웅, 멋쟁이 38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39
홰불이 되라 40
사랑의 약속을 지켜주시여 41

희생된 용사들을 잊지 못하시여 43
변함없는 전략적로선 44
사랑의 기념사진 45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가시여 46
만점짜리 공연 47
직접 수여하신 청년동맹기발 47
《처녀어머니》 48
청년강국! 48
청년들은 책을 가까이해야 한다 49
금별로 빛내주신 위훈 50
백두전구에 울려퍼진 총공격명령 50
자력갱생이 제일이다 51
최상의 믿음 52
뜨거운 은정 52
혁명사적교양실이 위훈전시관으로 53
확고한 결심 54
조선로동당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 54
제일 큰 힘이라시며 55
백두청춘들이 받아안은 크나큰 믿음 56
청년들이 지구를 들면 그 지구를 계속 돌리겠다고 하시며 57
천군만마 57
무려 20상이나 되는 기념사진! 58
격동적인 연설로 고무격려해주시고 60

머 리 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시였으며 한평생 청년들과의 사업에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습니다.》

일찌기 청년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로 투쟁대오에 묶어세우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오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을 그대로 이어오시여 청년들에게 혁명의 홰불봉을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으로 빛나게 하여주시였으며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사상을 그대로 이으시여 청년동맹을 강화발전시키시고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위력을 힘있게 떨침으로써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였으며 청년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절세위인들의 어버이품을 떠나서 조선청년들은 오늘의 행복도 찬란한 래일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정녕 절세위인들의 품은 조선청년들모두가 안겨사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이다.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찌기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청년운동사상을 제시하시고 청년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며 청년사업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청년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문제를 혁명의 전략적문제로,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였으며 혁명승리에 대한 락관과 숭고한 미래관을 지니시고 청년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서 만일 자신에게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잠글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일찌기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청년운동사상을 제시하시고 청년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며 청년사업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화전의 언덕에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ㅌ.ㄷ》는 어느 파에서 갈라져나온 조직도 아니고 또 거기에 망라된 성원들로 말하면 어떤 파벌에도 가담했거나 망명단체에 가있다가 떨어져나온 사람들도 아니였다고 하시면서 문자그대로 백지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새세대였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면 무엇보다 옳은

투쟁강령을 가지고 대중에 의거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벌려나가는 혁명의 전위조직을 내와야 한다고 인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ㅌ.ㄷ》결성을 위하여 진보적인 열혈청년들 한사람한사람을 품들여 키우시였다. 그 나날에 로동계급의 선진사상, 공산주의사상을 보급선전하기 위하여 휘발하강가의 숲에서 밤늦도록 동지들과 토론도 하시고 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에서 침식도 함께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때를 회상하시여 자본가들은 돈을 모으는 재미가 별재미라고 하지만 자신께서는 동지를 모으는 재미가 최상의 락이고 재미였다고 하시면서 동지 한명을 얻을 때의 희열을 어찌 황금덩이 하나를 얻을 때의 기쁨에 비길수 있겠는가고 하시였다.

주체 15(1926)년 10월 1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조직을 내오기 위한 예비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예비회의에서 조선독립운동의 실태를 분석하시고 혁명조직을 시급히 내와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신 다음 조직의 명칭과 성격, 투쟁강령, 활동규범초안들을 내놓으시고 토의에 붙이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초안들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주체 15(1926)년 10월 1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면밀한 사전준비에 기초하여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는 력사적인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먼저 일제의 식민지폭압만행을 폭로하신 후 일제를 비롯한 모든 제국주의를 왜 타도하여야 하며 그 투쟁을 어떻게 전개하여야 하는가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일투쟁의 력사적교훈에 비추어 상층의 몇몇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운동으로, 그 어떤 외부세력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선의 진정한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혁명조직을 먼저 내올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그 명칭은 타도제국주의동맹으로 하며 략칭은 《ㅌ.

ㄷ》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끝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ㅌ.ㄷ》의 강령을 밝히시고 그 수행을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회의에 참가한 전체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타도제국주의동맹 책임자로 한결같이 추대하였다.

이때로부터 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주체의 궤도를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그처럼 엄혹한 시기에 조선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혁명의 전위조직이며 새형의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ㅌ.ㄷ》가 탄생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였다.

《ㅌ.ㄷ》는 반제, 독립, 자주의 리념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새세대의 청년들이 뭉친 가장 순결하고 참신한 새형의 정치적생명체였다.

《ㅌ.ㄷ》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사람한사람을 키워 사상의지적단결을 이룩하신 새 세대 청년들로 구성된 조직이였으며 과학적인 투쟁강령과 활동규범 등 모든것을 완벽하게 갖춘 조선혁명의 전위조직이였다.

혁명활동을 청년운동으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파쟁이 우심하던 길림에서 백가지 숨을 쉬던 청소년들을 한가지 숨을 쉬게 만들어 놓은것은 확실히 귀중한 소득이였고 체험이였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길림에 새로운 운동선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에 합세하려고 각지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활경로가 각이한 천태만상의 청년들을 넓으신 도량으로 한품에 안아주시며 더 많은 사람들이 망라될수 있는 조직을 내오시기 위하여 무수한 사선의 고비들도 넘고넘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청년운동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

하시고 이 땅의 수백만 청년들을 주체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억세게 키워내신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의 한평생이다.

혁명의 전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자신의 청년관을 이렇게 피력하시였다.

《나는 언제나 청년들을 혁명의 전위로 보았다.》

청년들은 혁명의 전위, 여기에는 청년들이 혁명투쟁과 사회적운동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을 담당한 선봉대이고 주력부대이며 미래의 운명까지도 걸머진 골간부대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운동을 시작하시던 초시기부터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시였다.

이미 선행고전가들과 정치가들이 청년세대를 혁명의 교량자, 혁명의 후비대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외세의 침략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히던 암흑의 그 시기에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청년들은 혁명투쟁의 당당한 주력을 이룬다는것을 뚜렷이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청년관이 있어 조선청년운동의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수많은 청년들이 열렬한 혁명가, 애국자로 자라날수 있었다.

《공청가》에 비낀 넋

주체 24(1935)년 11월말 액목현의 어느한 수림지대에서 오락회가 벌어졌다.

유격대원들이 부르는 혁명가요의 힘찬 노래소리를 들으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왕청현 아동국장으로 사업하던 공청원 리순희동

무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지하혁명활동을 하던 그를 체포한 적들은 혁명조직의 비밀을 대라고 갖은 악행을 다했지만 그에게서 알아낸 비밀은 오직 공청원이라는 사실뿐이였다.

사형장에서도 그는 《공청가》를 힘있게 부르며 영웅적으로 최후를 마치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순희동무는 일제는 멸망하고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이 심장속깊이 간직되여있었기에 적들의 온갖 회유와 기만, 악행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사형장에서까지 원쑤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인민들에게 신심을 주는 연설을 할수 있었다고, 이런 동무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행군길에 열린 청년동맹지부회의

항일혁명투쟁시기 고난의 행군때 있은 이야기이다.

한번은 나어린 신입대원들이 행군도중에 비상용식량으로 가지고다니던 고기가루를 누구의 승인도 없이 버리고 온 일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타난 결함이 비록 작은것이지만 그것을 제때에 고쳐주어야 어린 대원들을 불굴의 혁명투사로 키울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청년동맹지부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취급하도록 하시였다.

회의에 친히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의 토론을 들으신 후 문제는 식량이 없어진데 있는것이 아니라 곤난앞에 굴복하여 비상용식량까지 버리게 된 그 사상적나약성에 있다, 오늘과 같은 간고한 투쟁의 길에서는 마음속의 사소한 나약성도 조만간에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하시면서 승리의 신심을 더 굳게 가져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청년동맹지부회의는 동맹원들의 사상과 의지를 더욱더 굳세게 단련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회의에 참가한 동맹원들은 한결같이 난관을 뚫고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이 범한 과오를 씻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의 사령부를 철옹성같이 보위하며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대로 튼튼히 준비해나갈것을 결의다졌다.

오라! 모이라! 단결은 힘이다

주체 34(1945)년 10 월 6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안남도 공청일군협의회에서 북조선민주청년동맹결성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민주청년열성자대회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킬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청년동맹을 성과적으로 결성하기 위하여서는 각 도공청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공청을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민주청년동맹을 결성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여야 한다고,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민주청년열성자대회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한다는것을 세상에 선포하며 민주청년동맹의 강령과 규약, 선언서를 발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선언서는 선동적으로 써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내용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언서의 마지막부분에는 청년들은 나라의 기둥이다, 피끓는 이 땅의 청년들이여! 오라! 모이라! 단결은 힘이다, 단결된 힘과 끓어넘치는 정열로써 이 중대한 사명을 완수하자! 이렇게 쓰면 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청년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것을 조국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기시고 그를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그해 10 월말 평양에서는 민주청년열성자대회가 열리고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할데 대한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으며 이듬해 1 월 17 일에는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의 창립이 온 세상에 선포되였다.

청년들의 애국열의를 귀중히 여기시고

해방후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시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신것은 온 나라 청년들의 가슴마다에서 불타는 애국의 마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날 착취와 천대속에 시달리였던 조선청년들 한사람한사람을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품에 안아 정규적혁명무력의 대오에 세워주신 이야기들중에는 주체 37(1948)년 2월 7일에 있은 가슴뜨거운 일도 있다.

조선인민군창건을 선포하기 하루전인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한 부대의 지휘관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보고받으시였다.

한달전 한 청년이 마을청년들과 함께 군대에 입대하려다가 그만 불합격을 맞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막무가내로 한달동안 그냥 부대를 따라다니였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즉시 청년을 부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키도 남달리 작고 나이도 어린 청년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어린 동무가 군대에서 복무할수 있겠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복무할수 있다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을 메고 보초도 설수 있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설수 있다는 청년의 대답소리는 아주 씩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동무도 앞으로 군사복무를 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어린 동무들도 지휘관들이 잘 돌봐주고 이끌어주면 훌륭한 군인으로 키울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소년중대원들은 동무보다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았

지만 총을 메고 왜놈들과 잘 싸웠다고, 행군할 때는 힘이 들어 울기도 하였지만 일단 적과 맞다들면 무섭게 싸웠다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음성은 감회에 젖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붉게 상기된 청년의 얼굴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동무가 이제 군대에 입대하면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꼭 군복을 입겠다는 동무의 생각이 기특하다고 하시며 다정히 어깨를 두드려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청년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신채 지휘관에게 이 동무를 대렬에 세우고 다니도록 하라고 이르시였다.

이렇게 되여 간절한 소원을 이룬 청년은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축복속에 정규적혁명무력이 탄생하기 전날에 마침내 그처럼 소원하던 군복을 입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한 애국청년들이 혁명무력의 억센 기둥으로 되였기에 조선인민군은 짧은 기간에 그 어떤 강적도 두려움모르는 불패의 강군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미래의 조선의 주인공들

주체 37(1948)년 11월 어느날이였다.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 3 차대회에 참가한 청년대표들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한 모범민청원들의 소행을 료해하시고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끝없는 격정에 넘쳐 가슴들먹이는 청년대표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은 미래의 조선의 주인공들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조국건설을 위하여 몸바쳐 싸워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청년들이 언제나 주동이 되여 잘 싸웠다고 하시면서 나라가 강해지려면 미래의 주인인 청년들이 강

해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동무들을, 해방된 조선의 청년들을 믿고있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마디마디 뜨거운 정과 믿음이 어린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음성은 청년대표들의 가슴을 더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였다.

《천리마를 타고가는 첫 부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대고조시기 해주-하성철길공사에서 세운 청년돌격대원들의 위훈을 값높이 내세워주신 크나큰 믿음은 오늘도 조선청년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적어도 3~4 년은 실히 걸려야 하는 철길건설을 청년들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47(1958)년 6월 공사장을 찾으시고 우리 근로자들은 지금 천리마를 타고 쉴 사이없이 앞으로 내달리고있는데 동무들은 이 천리마를 타고가는 첫 부대이라고 그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도개통식날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단 75 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한 청년들의 투쟁성과를 두고 못내 기뻐하시며 뜻깊은 연회를 마련해주시고 조선청년들은 영웅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랑과 정을 담아 불러주신 《천리마를 타고가는 첫 부대》, 《영웅》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고 조선청년들은 천리마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로력적위훈을 떨치였다.

청년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고무해주시며

주체 57(1968)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전국청년총동원대회가 진행될 때였다.

휴식시간이 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에도 쉬지 않으시고 수십명의 대표들을 휴계실로 부르시였다.

뜻밖의 영광에 몸둘바를 몰라하는 대표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그들

의 건강과 사업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의 어느한 편직공장에서 사로청위원장으로 사업하는 청년을 알아보시고 현재 공장에서 기술혁신은 잘되고있는가, 편직물은 많이 나오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공장의 청년들이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질좋은 편직물들을 많이 생산하고있으며 부속품들도 다 자체로 생산하여 쓰고있다는 그의 힘찬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들이 좋아하는 질좋은 편직물들을 많이 생산하는데서 청년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이 담겨진 교시를 받아안는 대표들의 가슴마다에는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선봉대의 역할을 다해나갈 불타는 결의가 끓어넘치였다.

장래문제까지 걱정하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천제1중학교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학생에게 학교를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학생이 농촌에서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왜 농촌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학생이 오늘 당에서 청년들을 농촌으로 부르고있기때문이라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참 좋은 생각을 했다고 하시며 거듭 칭찬해주시였다.

다른 학생들도 저마다 학교를 졸업하면 농촌으로 진출하겠다고, 인민군대에도 입대하겠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두 참 좋은 생각들을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자기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라고 교시하시였다.

몸소 가르쳐주신 활동방향

민청 제 4 차대회가 진행되던 때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휴식시간에 청년대표들을 몸가까이로 부르시였다.

청년대표들이 들어서자 그이께서는 나이는 몇이며 집에는 누가 있는가, 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은 없는가, 사업에서 제기되는것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알아보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나이가 제일 어린 청년대표에게 어디에서 왔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대견하신 표정을 지으시며 어린 동무가 정말 장하다고, 일이 힘들지 않는가고 따뜻이 념려해주시였다. 그러시고나서 민청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을 우리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날의 가르치심은 조선청년운동의 활동방향을 밝혀주는 고귀한 지침으로 되였다.

라지오와 농업기술도서들도 보내주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원군 원화리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알고싶어하고 나라안팎의 정세도 자주 듣고싶어한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러한 의견을 허물없이 받으시며 그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

현지지도를 끝마치신 후 그이께서는 그처럼 바쁘신속에서도 원화리 청년들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라지오와 자신께서 직접 보시던 농업기술도서들도 보내주시였다.

여기에는 조선청년들이 당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관철하는데서 기수가 될것을 바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 있었다.

대회장에 울려퍼진 환호성

주체 60(1971)년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 6 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자랑찬 력사와 빛나는 전통에 대하여, 조선청년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청년들이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대회참가자들은 대회에 참석하시여 조선청년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뜻깊은 대회장에 울려퍼진 환호성, 그것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친대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해나가려는 조선청년들의 심장의 분출이였다.

간곡한 당부

주체82(1993)년 7월 27일 평양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경축야회 《우리는 승리하였다》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야회를 보아주시기 위하여 현지에 나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하게 된 출연자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설레였다.

여러 종목에 이어 관현악과 합창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가 시작되였다.

공연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에서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당을 따라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조선청년들의 신념과 결의를 잘 형상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에게 우리 청년들은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노래를 부르며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나가야 한다고,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여도 끝까지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청년전위들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중시로선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청년동맹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청년들을 백두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을 그대로 이으시여 언제나 청년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청년들을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근위대, 돌격대로 키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 군, 청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이 강하고 군대가 강하고 청년들이 강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으며 그 어떤 강적도 때려부실수 있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을 제일로 믿고 사랑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중시사상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청년동맹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청년들을 백두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조선혁명의 첫 세대 영웅들

금별의 공화국영웅메달이 화환진정대중심에 부각되여있는 주작봉마루에 안치된 항일혁명선렬들속에는 조선청년운동의 새 력사를 개척한 첫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반신상도 있다.

조국해방의 날도, 인민의 새로운 무장력인 반일인민유격대창건도 보지 못하고 떠나간 《ㅌ.ㄷ》의 용사들!

주작봉마루에서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는 투사들 대다수가 항일의 군

복을 입고있지만 혁명의 첫 세대인 《ㅌ.ㄷ》의 용사들가운데는 그렇게도 소원했던 반일인민유격대군복을 한번도 입어보지 못한채 조국해방의 위업을 개척하는 길에서 《한별 만세!》를 높이 부르며 꽃다운 생을 마친 사람들도 있다. 영생의 언덕에도 그들은 수수한 옷차림으로 새 세대들앞에 서있다.

허나 그들의 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마감단계에 들어선 대성산혁명렬사릉 개건확장공사장을 찾으시여 해방후에 세상을 떠난 렬사들가운데서 영웅칭호를 수여받은 렬사들만 영웅메달을 단것으로 형상되여있는것을 보시고 혁명렬사릉에 안치된 혁명렬사들은 다 영웅이라고 하시고 공화국영웅메달을 혁명렬사들의 반신상에 달아주는것보다 화환진정대 중심에 크게 부각해놓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날의 가르치심은 조선혁명의 첫 시기 청춘의 희망도 리상도 포부도 고스란히 혁명에 바친 《ㅌ.ㄷ》용사들을 조선혁명이 낳은 첫 세대 영웅으로 높이 내세워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고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이였다.

최대한으로 내세우고 최대한으로 사랑하라!

주체52(1963)년 6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사업을 맡아보는 한 일군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너무도 다정다감하신 그이의 인품에 끌리여 청년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청년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무랍없는 청을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의 청년관에 대하여 알고싶단 말이지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문제는 우리 혁명의 당면문제인 동시에 전망적인 문제이라고, 지금까지 선행고전들에서는 청년문제를 혁명력량에 관한 문제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기

껏해서 각성된 청년인테리들이 혁명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교량자적역할을 하는것으로 보았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청년문제를 력사상 처음으로 새롭게 보고 그들을 우리 혁명의 주력군의 하나로 내세우신분은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라고 하시면서 주체적인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로정에 대하여 론리정연하게 해설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내용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수첩에 적어나가는 그 일군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이야기를 계속하시였다.

청년들이란 곧 미래이다. 청년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청년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따라 조국의 앞날이 좌우되고 혁명의 운명이 결정된다. 청년문제는 오늘의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당면한 문제로만이 아니라 래일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만년대계의 문제로 보고 전망성있게 풀어나가야 한다. 례컨대 앞으로 온 사회에 전인민적소유가 지배하게 되면 계급으로서의 농민문제는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청년문제는 인류력사에 영원히 존재하는 항구적인 사회적문제로 된다. 따라서 청년문제란 오늘의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로만이 아니라 래일의 주인공에 관한 문제, 혁명의 영원한 미래에 관한 문제로 나서는것이다. …

우리는 청년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억만재부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한마디로 말하여 최대한으로 내세우고 최대한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청년들에 대한 가장 옳바른 태도와 립장이라고 그이께서는 교시하시였다.

최대한으로 내세우고 최대한으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혁명의 대를 굳세게 이어나가야 할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지론이였고 숭고한 뜻이였다.

조선로동당의 선봉대, 돌격대

주체 52(1963)년 7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학생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청년들이 시대앞에 지닌 임무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선봉적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다름아닌 청년들이라고, 청년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천리마대진군의 북소리를 더욱 세차게 울릴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청년다운 기백은 청년들의 심리와 결부되여야 더 잘 발휘된다고 하시며 청년들이 언제나 혁명적랑만과 열정에 넘쳐 배우며 생활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날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청년들이 청춘의 기백과 열정을 지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당의 선봉대, 돌격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자랑높이 휘날리는 속도전청년돌격대기발

주체 64(1975)년 정초 어느날 밤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사업을 맡아보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력사적인 조선로동당창건 30 돐을 맞이하는 해에 사로청에서 설계한 사업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받들고 나라의 긴장한 수송문제를 푸는데 청년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문제를 설계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로청에서 새해사업을 옳게 작전했다고, 당의 의도를 맞혔다고 더없이 기뻐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벽에 걸려있는 조선지도앞으로 다가가시였다.

그러시고는 열정에 넘치시여 나라의 철도망건설과 관련한 당의 휘황한 설계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잠시후 일군에게 수송전선뿐 아니라 발전소와 공장, 탄광과 광산들도 더 많이 일떠세우고 바다를 막고 산을 떠옮기는 대자연개조사업도 힘있

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만년대계의 대건설을 다름아닌 피끓는 청년들, 당정책관철에서 언제나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청년들이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참으로 혁명하는 시대, 주체시대에 사는 우리 청년들의 두 어깨우에는 대번영기에 들어선 우리 조국의 오늘과 래일이 짊어져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로청에서 청년돌격대를 무어가지고 한번 본때있게 내밀어보자고 하시면서 청년들이 들끓어야 전국이 들끓는다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조직하는 청년돌격대는 그 면모에 있어서나 활동방식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 째이고 새로와야 한다고 하시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이번에 조직하는 청년돌격대는 한 대상물의 건설이 끝나도 해산할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면서 군대와 같이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정규화된 돌격대, 충분한 기술적수단들을 갖추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우는 가장 위력한 돌격대로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조직되는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이 이름은 시대정신에도 어울리고 청년들의 감정에도 맞을것 같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새롭게 조직되는 속도전청년돌격대는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서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돌격대가 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교시를 주시였다.

주체64(1975)년 2월 16일, 뜻깊은 이날 **김일성**광장에서는 속도전청년돌격대조직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청년돌격대원들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건설장들에 떨쳐나설것을 궐기하는 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최고사령관의 별동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청년들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에게 원산-금강산사이 철길건설공사를 통채로 맡겨주시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의 책임일군을 몸가까이 불러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친히 건설력량까지 무어주시고 북부철길건설때처럼 전동맹이 달라붙어 원산-금강산사이 철길건설공사를 끝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안겨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공사정형을 수시로 보고받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으며 공사와 관련한 수십차례의 강령적인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건설공사에 떨쳐나선 청년건설자들의 높은 충성심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신문, 방송으로 널리 소개선전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까지 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 세심한 지도가 있어 조선청년들은 불과 1년남짓한 짧은 기간에 원산-금강산사이 철길건설공사를 끝내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청년절이 제정된 사연

주체79(1990)년 5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운동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청년들이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계속 위훈을 세우도록 하자면 교양사업을 잘하는 것과 함께 청년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고무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청년절을 제정해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사실 누구도 청년절을 내오는데 대하여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청년들은 청년동맹창립일을 기념하는것만으로도 커다란 영광과 행복으로 여겨왔던것이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년운동을

지도하여주시는 과정에 있었던 의의있는 날들중에서 선택하면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을 모시고 공청사업을 해온 오랜 일군들과 잘 토론해보라고 방도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주체80(1991)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조직하신 날을 청년절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후부터 얼마후 청년절제정에 관한 정령이 발표되였다.

참으로 청년절은 청년들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굳게 믿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발기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제정된 청년들의 혁명적명절이다.

손수 제정하여주신 청춘제복

주체80 (1991) 년 9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동맹중앙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을 만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이 입고다니는 제복의 형태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언제부터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제복을 잘 만들어주려고 하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돌격대원들이 시내와 부모들이 있는 고향으로 오갈 때 입을수 있게 제복을 잘 만들어야겠다고 하시며 제복의 도안과 그 형태, 천의 색갈, 경표문제에도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청년조직은 당의 령도를 받아야만 당의 후비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고 하시며

주체80(1991)년 12월 2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동맹의 한 일군을 부르시여 오늘 동유럽의 어느한 나라에서 공청이 당에서 떨어져나갔다고 선포한것을 아는가고 하시며 준절하신 음성으로 이렇

게 교시하시였다.

청년조직은 반드시 당의 령도를 받아야만 당의 후비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

당의 령도를 청년동맹의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청년조직이 영원히 들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였다.

온 나라가 알고 세계가 알도록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였던 주체 82(1993)년 3 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한 탄광마을의 처녀와 농장원처녀가 특류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할 결심을 안고 결혼식을 하게 되였다는 소행자료를 보고받으시였다.

온 나라 청년들이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될 각오를 안고 일떠서던 때에 고상한 인간적미풍을 발휘한 소행자료들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동무들이라고, 자신의 감사와 함께 선물을 보내주고 널리 소개선전하라고 하시며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 안변군의 한 처녀가 불구의 몸인 영예군인과 가정을 이룬 후 많은 청년들이 영예군인들과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이런 청년들에게 감사를 주는것은 그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하여 온 나라가 알고 세계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혁명위업계승의 불길이 되라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50 돐경축 평양시청년학생들의 홰불행진이 시작될 때 청년들에게 혁명의 홰불봉을 안겨주시던 숭엄한 모습은 온 나라 인민들과 청년들을 무한히 감동시켰다.

홰불행진이 있은 다음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청년들에게

혁명의 홰불봉을 넘겨주신 의도에 대하여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혁명의 홰불봉에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꺼질줄 모르는 혁명의 불길이 되여 당을 맨 앞장에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청년전위가 되기를 바라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교시는 조선청년들의 가슴에 자자구구 깊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조직으로

주체 84(1995)년 12 월 어느날 청년동맹의 한 책임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로청의 이름을 고치는 문제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새로 고치는 사로청의 이름에 사회주의라는 문구를 넣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사로청의 이름을 고치는 문제와 관련된 문건에 활달하신 필체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라고 하자는 친필을 새겨주시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바로 여기에는 조선의 청년조직을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조직으로 만대에 빛내이며 조선청년운동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청년운동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뜻이 깃들어있었다.

《청년들을 사랑하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선포한 사로청대표자회가 진행된 다음날인 주체 85(1996)년 1 월 20 일이였다.

청년사업부문 일군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사로청창립 50 돐을 맞으며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구호에는 우리 청년들을 당과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 계승자로 훌륭히 키워주시고 영웅적위훈에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청년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혁명적랑만과 희망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깃들어있으며 청년들에 대한 당과 인민의 커다란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청년들을 사랑하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호에는 청년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당의 참된 아들딸로 키우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청년전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청년전위》라는 칭호는 조선로동당력사에 금문자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9(1990)년 3월 일군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에 준 《청년전위》라는 칭호의 의미를 다는 모를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칭호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사령부를 호위하던 경위중대의 《경위》와 같은 칭호이라고 뜻깊은 교시를 주시였다.

그때 경위대원들의 대부분은 공청원들이였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본사명이고 조선청년운동의 총적목표이라고, 청년동맹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후비대이고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였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기회에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대처하여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전도와 사회주의의 앞날은 새 세대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청년조직은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적후비대로서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할 영예로운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청년조직들이 사상사업에 힘을 넣지 않으면 새 세대들이 개인의 안락만을 추구하며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자본주의자유화바람에 물들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홀시한데로부터 사회주의제도의 붕괴를 초래한 일부 나라들의 비극적현실에 대하여 다시금 심각히 돌이켜보게 하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잠시라도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은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혁명의 후비대이며 부강조국건설의 가장 힘있는 력량이라고, 청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 조국과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큰 힘을 넣어왔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1990 년대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지 못한 교훈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

서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매우 좋다고,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우리 나라처럼 혁명적이고 건전한 청년들을 가지고있지 못하다고,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마음을 놓고 앉아있거나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잠시라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청년중시의 사랑속에 성장한 녀성일군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도에서 태여나 인민보안기관에서 군무생활을 하던 한 처녀가 농촌으로 진출하면서 올린 편지를 받아보게 되시였다.

처녀의 소박한 편지에서 청년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소중히 읽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대견해하시면서 친히 동무의 생각이 기특하다고, 훌륭한 당의 딸이 되기를 바란다는 사랑의 친필을 써주시였다.

얼마후 그이께서는 한 일군에게 그의 부모들도 괜찮지만 본인이 더 선진적이라고, 그의 정신세계가 아주 순박하고 깨끗하다고, 지금 우리 나라에는 자신의 명예나 안락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바칠줄 아는 훌륭한 청년들이 많다고, 그런 청년들이 많기때문에 우리 나라가 강하고 원쑤들이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것이라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칠줄 아는 훌륭한 청년들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으며 온 나라가 알도록 내세워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평범한 처녀의 소행을 그리도 귀중히 여기시며 정말 훌륭한 청년이라고 값높은 평가를 안겨주시였고 사업과 건강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에 떠받들려 그는 사회주의농촌을 튼튼히 지켜가는 능력있는 녀성일군으로 성장하게 되였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책을 공급해주어야 한다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강도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한 기업소의 로동자합숙에 들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정하신 음성으로 합숙생처녀에게 무슨 책을 좋아하며 어떤 책을 많이 보는가고 묻기도 하시였고 기업소의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은 얼마나 배포되였는가도 알아보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합숙에 청년들이 많은것만큼 그들에게 더 많은 책을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이런 곳에는 다른데보다 먼저 책을 보급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그 방향과 방도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한날한시에 받아안은 은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영웅도로건설이 한창이던 나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속도로건설에서 위훈을 떨치고있는 청년돌격대원들에게 만두를 푸짐하게 맛보이자고 하시며 그 준비로부터 식사조직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평양시안의 이름있는 식당들에서 잘 가공하여 한날한시에 봉사하도록 그 가공방법까지 몸소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한 은정이 어린 만두를 비롯한 갖가지 음식들이 그 어느 잔치상 못지 않게 푸짐히 차려진 음식상을 마주한 청년돌격대원들은 누구나 선뜻 수저를 들지 못하였다.

자신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줴기밥을 드시면서 청년들을 위해 마련해주신 푸짐한 음식상, 그것은 정녕 청년들을 세상에서 제일로 여기시며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랑과 믿음이 낳은 결정체이고 조선청년들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훌륭한 《잔치상》이였다.

준공식에 참가한 선남, 선녀

청년영웅도로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던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해당 부문 일군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이제 머지않아 청년영웅도로가 완공되겠는데 돌격대원들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가고 일군들에게 물으시였다.

미처 대답을 올리지 못하는 일군들을 둘러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은 나라가 어렵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우리 당만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훌륭한 청년들이라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돌격대원모두를 훌륭하게 내세우려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려있는 고급양복과 비로도로 만든 옷을 차려입은 청년돌격대원들이 청년영웅도로준공식장에 들어서게 되였다.

혁명대학을 나왔다고 할수 있다고 하시며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속에서 조선청년들은 강철로 단련되였다. 온 나라가 다 아는 시대의 영웅으로 성장하였다.

어느해 1 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영웅도로건설당시 현장에 나붙었던 직관물들을 찍은 사진화첩 《청춘대통로》와 소묘실화집을 보아주시였다.

《장군님 명령하시면 지구도 든다!》, 《뼈가 부서져 자갈이 되고 살이 찢겨 흙이 되더라도…》, 《청춘은 밤을 몰라!》 …

하나하나의 제목들은 그대로 청년들의 심장의 웨침이였다.

무심히 대할수 없으신듯 한페지한페지 보고 또 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영웅도로건설자들은 혁명대학을 나왔다고 할수 있다고 깊은 감명속에 이야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나라의 장한 아들딸들에 대한 불같은 정을 안으시고 소묘실화집에 있는 그림들에도 우리 청년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투쟁모습이 실감있게 반영되여있다고 치하해주시였다.

얼핏 보면 너무도 평범하게 안겨오는 조선의 청년영웅도로건설자들, 그들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였다.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

주체 88(1999)년 정월 초하루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에게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을 제시해주시면서 청년들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은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 당은 청년들을 거창한 강성국가건설에로 부르고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이 피끓는 청춘과 심장을 바칠 때 못해낼 일이 없다.

그이께서는 모든 당일군들과 당조직들은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장들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우며 모두가 리수복, 길영조와 같은 영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라는 영예로운 칭호에는 청년들의 귀중한 청춘시절을 조국과 더불어 가장 값높게 길이 빛내여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웅심깊은 사랑이 깃들어있다.

금방석에 올려놓아도 아까울것이 없다

주체 89(2000)년 11 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완공된 청년영웅도로를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과 로력적위훈을 높

이 평가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세상에 크게 자랑할만 한 영웅청년들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금방석에 올려놓아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긍지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청년영웅도로건설자들의 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건설기념메달도 제정하도록 하고 도로이름도 청년영웅도로로 부르도록 하였다고, 여기에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이 담겨져있다고 하시였다.

이날 후대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부인 청년영웅도로를 더 잘 꾸리고 알뜰히 거둘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로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청년건설자들과 함께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중앙이 가리키는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나아가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과 청년들앞에는 훌륭한 미래가 펼쳐져있으며 조선청년운동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주체적청년운동은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청년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함에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도 아낌없이 기울이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청년운동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더욱 빛나고 조선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이 남김없이 떨쳐지고있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2 월의 피눈물언덕을 넘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관철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천만군민이 산악같이 일떠섰던 그때 몸소 한자 또 한자 쓰시여 온 나라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글발이 있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김정은

2012 1.26》

이 뜻깊은 친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슬하에서 승리와 영광을 떨쳐온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삶의 궤도를 세월의 언덕넘어 또다시 억세게 이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손길이였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리켜주신 조선청년의 길이다.

총진군대오의 척후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조선청년들에게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척후대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척후대란 대오의 맨 앞장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진하는 대오의 선두에서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 질풍같은 속도로 사회주의건설의 진군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는 척후대로 다름아닌 청년들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처럼 조선청년들을 총진군대오의 앞장에 내세우시며 사회주의강국의 문패도 그들이 남먼저 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이 총진군대오의 척후대, 이 부름에 어리여있다.

참된 애국자들로 내세워주시며

주체 101(2012)년 3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날바다길을 헤쳐 초도의 병사들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방어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방어대군인들은 조국의 수호자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여야 한다는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방어대군인들은 륙지와 멀리 떨어진 불리한 외진 섬에서 살고있지만 오직 조국과 인민의 안녕만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사랑을 담아,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중대는 군인들의 정든 집

주체 102(2013)년 3 월 어느한 구분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취사장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여러가지 음식감을 흐뭇한 시선으로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병사들이 중대를 자기의 정든 집으로 여기도록 하자면 그들에게 뜨뜻한 잠자리와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부대, 구분대들을 시찰하면서 병사들의 침실이 훈훈하고 취사장에 음식감들이 그득히 쌓인것을 볼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잠자리가 뜨뜻하고 식탁이 풍성한 구분대들은 례외없이 지휘관들이 중대를 군인들의 정든 집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요구를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군인대중을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구분대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서 지휘관들을 믿고 귀중한 병사들을 맡긴것만큼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전선에서 보내주신 축하문

주체 101(2012)년 8 월 어느날이였다.

전승절에 이어 청년절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하여 청년들은 물론 온 나라가 또다시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절경축행사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시였으며 경축행사기간 대표들에게 일생을 두고 추억할 최상의 대우를 해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8 월 27 일 평양에서는 청년절경축대회가 성대히 열리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멀리 전선에서 조선청년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담아 청년절경축대회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사랑의 축하문을 보내주시였다.

축하문이 전달되는 대회장은 격정으로 세차게 파도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축하문을 받아안은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끝없는 감격에 넘쳐 폭풍같은《만세!》의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를 터쳐올렸다.

조선로동당의 큰 자랑

주체 101(2012)년 8 월 어느날 청년절경축대회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다.

《만세！》의 함성이 우뢰와도 같이 터져오르는 기념촬영장은 말그대로 환호의 바다, 격정의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온 장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해갈 청년들의 신념의 웨침으로 진감하였다.

그칠줄 모르고 계속 터져오르는 환호속에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우신 우리 청년들이 힘이 있다고, 청년동맹을 강화하면 무서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오늘 청년들의 저 모습은 영화를 촬영한다고 해도, 흉내를 피우라고 해도 그렇게 할수 없을것이라고, 이런 청년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큰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큰 자랑！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사상에 떠받

들리여 영광의 날이나 준엄한 날이나 변함없이 당을 따라 곧바로 걸어온 청년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장 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는것이다.

감나무중대에 베푸신 특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1(2012)년 8월 어느날 감나무중대를 찾으시였다.

중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신 다음 중대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중대예술소조공연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헤여지는것이 너무 아쉬워 저저마다 품에 안겨들며 좀처럼 떨어질줄 몰라하는 녀병사들을 정깊게 바라보시며 감나무중대의 군인들을 위해 해줄수 있는것은 다 해주려고 한다고 하시며 좀전에는 중대군인들과 집체적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군인들과 개별적으로 기념사진을 찍겠다고 정답게 말씀하시였다.

중대군인모두와 개별사진을 찍으시려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오랜 시간 서계셔야 하였으므로 수행일군들은 그이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나무중대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하루종일이라도 서있겠다고 하시며 그들모두와 사랑의 개별사진을 찍어주시였다.

참다운 애국자, 영웅, 멋쟁이

주체 101(2012)년 10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제 12 차 인민체육대회 체육단부문 남자축구 결승경기를 관람하실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기의 휴식시간에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선수들과 감독들을 부르시였다.

녀자유술, 력기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 감독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의 경기소식을 정깊이 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제경기들에 나가 우승하여 공화국기를 날리는 체육인들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자들이고 영웅들이며 멋쟁이들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엄지손가락도 펴보이시며 선수들을 대견히 바라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제경기에 나가 우승하고 시상대에 올라선 우리 선수들이 《애국가》가 울리고 공화국기가 게양될 때에는 다 국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고 체육인들의 심정을 헤아려주실 때 장내는 해솟는 바다처럼 설레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우승하여 자본주의나라의 한복판에 람홍색공화국기가 련이어 게양될 때 눈물이 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앞으로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겠다는 선수들과 감독들의 결의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히 웃음지으시였다.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주체 102(2013)년 3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4.25 국방체육단(당시)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의 활쏘기경기를 몸소 보아주시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활쏘기선수들을 몸가까이 부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들이 착용하고있는 활과 화살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사용에서 좋은점과 바로잡아야 할것은 무엇인가, 경기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심히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체육경기와 마찬가지로 활쏘기경기에서도 어떤 기재를 리용하는가에 따라 경기성과가 크게 좌우된다고 하

시면서 활쏘기선수들에게 제일 좋은 기재들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단체경기에 이어 개인경기에서 선수들이 높은 점수를 얻을 때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활쏘기경기는 보는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흥미있고 재미있는 경기라고, 화살이 목표중심을 정확히 맞히는것을 볼 때 느끼는 희열은 류다른것이라고 하시면서 활쏘기경기는 사격과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활쏘기선수들의 경기가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진행한 경기를 보면서 우리의 활쏘기선수들이 앞으로 올림픽경기를 비롯한 국제경기에 진출하여 얼마든지 우승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고 그들에게 필승의 신심도 안겨주시였으며 앞으로 우리식의 활쏘기기술과 전술체계,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완성하여 훈련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선수들의 체질에 맞는 활쏘기기재들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4.25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 감독들, 지휘성원들이 활쏘기종목을 더욱 발전시켜 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경기성과들을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조선의 모든 체육선수들이 국제경기마다에서 우승을 가져오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불패의 힘으로 되고있다.

홰불이 되라

주체 102(2013)년 4월 어느날 청년동맹의 한 일군을 만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동맹체육단에 축구종목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축구종목이 없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서운한 안색을 지으시고 잠시 말

씀이 없으시다가 축구는 체육에서 상징종목이라고 하시면서 청년동맹에서 축구를 하면 잘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일군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대로 청년동맹체육단에서도 축구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청년동맹체육단에 새로 조직하는 축구팀의 이름을 《홰불》이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홰불》!

여기에는 조선청년들이 체육은 물론 모든 면에서 온 나라를 앞장에서 이끌고나가는 거세찬 홰불이 되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기대가 깃들어있었다.

그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4.25 팀과 홰불팀사이의 남자축구경기를 보아주시면서 자신께서 여러번 강조하였지만 당의 부름에 화답하는 청년들의 기세가 높아야 온 나라가 들끓고 우리 혁명이 더욱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언제인가는 앞으로 청년절을 맞으며 체육경기를 조직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홰불이 청년들을 상징하는것만큼 그 명칭을 홰불컵축구경기로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사랑의 약속을 지켜주시여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5 월 1 일경기장에서 조선의 녀자축구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실 때였다.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선수, 감독들과 관람자들을 향해 오래동안 손저어 답례하시고나서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해당 일군에게 한 녀성탁구선수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가 왔는가고, 왔으면 빨리 데려오라고 이르시였다.

순간 일군은 가슴이 뜨거워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열흘전에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몸소

그를 불러주시는것이였다.

열흘전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고 당을 받든 체육인들을 모두 영광의 단상에 내세우고싶으시여 제 17 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 감독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시종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동무들이 보고싶었다고, 동무들은 이번에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결사옹호보위하고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높이 떨쳤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위훈을 하나하나 치하해주고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탁구선수, 감독들앞으로 다가가시여 한 녀성탁구선수를 찾으시였다.

국제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조국을 떠나있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제 17 차 아시아경기대회 탁구혼성복식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경기를 마지막까지 잘했다고 하시며 그가 없는것을 못내 아쉬워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앞으로 기회를 마련하여 그를 꼭 만나주겠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바로 그날의 사랑의 약속을 지켜주신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부르신다는 소식에 접한 녀성탁구선수는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를 다정히 맞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의 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그가 제 52 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데 이어 제 17 차 아시아경기대회 탁구혼성복식경기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쟁취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였는데 정말 기특하다고, 앞으로 훈련을 더 잘하여 국제경기들에서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믿는다고 고무해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녀성탁구선수를 자신의 곁에 다정히 세워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희생된 용사들을 잊지 못하시여

주체 102(2013)년 11 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투임무수행중에 장렬하게 희생된 구잠함 233 호 용사들의 묘를 찾으시였다.

희생된 용사들을 잊지 못하시여 그들이 복무하던 군부대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묘앞에 꽃송이를 진정하고 경의를 표시하신 후 용사들의 묘비를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용사들의 사진이 아주 잘되였다고, 모두 젊고 끌끌하고 잘났다고, 금시라도 일어나 반길것만 같다고 하시며 격해지는 심정을 애써 누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조국수호는 희생도 각오해야 하지만 용사들이 너무도 젊은 나이에 우리곁을 떠난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비분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비통함을 참으실수 없으시여 옮기던 걸음을 멈추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포부도 크고 위훈을 세우려는 꿈과 희망으로 가슴불태우며 복무의 나날을 보낸 용사들과 영웅이 되여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싱글벙글 웃으며 떠난 아들들의 희생을 두고 눈물을 흘릴 부모들,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던 안해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것만 같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용사들의 묘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묘비에는 묘주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동무들의 묘주는 자신께서 되겠다고, 묘비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으라고, 묘주의 이름까지 써넣어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것 같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용사들이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너무도 억이 막히고 가슴이 아프시여 천길 바다밑을 다 뒤져서라도 희생된 그들의 시신을 마지막 한사람까지 무조건 찾아내여 장례식을 잘 해줄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으며 용사묘의 형성안을 여러차례나 보아주시면서 그 위치까지 정해주시고 묘비에 돌사진을 붙일데 대한 지시를 주시고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후에는 용사들에게 **김정일**청년영예상을 비롯한 높은 급의 국가표창과 애국렬사의 고귀한 칭호,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안겨주시였으며 희생된 렬사들의 천연색사진을 액틀에 넣어 당마크가 새겨진 붉은 천에 싸서 유가족들에게 보내주시였다.

조국을 보위하는 초소에서 희생은 각오해야 하는것이고 또 조국을 위해 바치는 병사의 생보다 더 값높고 빛나는 삶은 없건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병사들을 그 어떤 군직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혁명의 한길에서 뜻과 정을 같이하는 귀중한 혁명동지로 여기시고 한사람한사람을 자신의 살점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며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였다.

변함없는 전략적로선

어느해 1월 새로 건설된 청년운동사적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총서홀에 정중히 모신 청소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바라보시며 일군들에게 수령과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정말 잘 형상하였다고 하시였다.

그날 사적관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운동령도사에서 중핵을 이루는것은 청년들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언제 어느때나 시대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신것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속에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년대들을 영웅적위훈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안광에는 청년문제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청년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빛내여가시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어리여있었다.

잠시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숭엄한 격정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시고 빛내여오신 주체혁

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처럼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을 지니고 청년중시사상을 변함없는 전략적인 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사랑의 기념사진

주체 103(2014)년 4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하늘의 자폭용사 길영조영웅의 아들 길훈동무의 비행훈련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의 비행모습을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바라보시며 길영조영웅의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누비던 하늘길을 아들이 날고있다고, 대를 이어 날으는 조국수호의 항로라고, 잘한다고, 정말 잘한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다리시는 곳으로 비행기를 능숙히 조종하여 온 길훈동무는 그이께 훈련명령을 집행하였다는 충성의 보고를 드리였다.

길훈동무를 한품에 안으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장하다고, 정말 장하다고, 비행사대회에서 한 토론을 주의깊게 들었는데 다진 맹세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길영조영웅이 최후를 마칠 때 동무는 몇살이였는가,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는가를 다정히 물어주시고 길훈동무는 3 살때 아버지를 잃었는데 이제는 다 자라 아버지가 지키던 초소에 섰다고, 25 살에 아버지처럼 비행중대장이 되였다고, 우리 혁명의 대는 이렇게 이어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길영조영웅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실천행동으로 보여준 진짜배기 비행사라고, 아버지처럼 조국수호의 항로를 부대의 맨 앞장에서 날아야 한다고 당부하시며 길훈동무를 꼭 껴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가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4(2015)년 8 월 2015 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 1 위를 쟁취한 조선의 장한 아들딸들을 비행장에서 직접 맞아주시였다.

2013 년 동아시아컵녀자축구경기대회와 제 17 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축구경기를 비롯한 지난 경기대회들에서 지역의 강팀들을 물리치고 련승을 기록한데 이어 또다시 단연 영예의 제 1 위를 쟁취하여 조선녀자축구의 위력을 만천하에 떨치고 돌아오는 녀자축구선수들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영예의 금메달을 어머니조국에 안고온 녀자축구선수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열렬히 축하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번 경기대회에서 주체강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 조국해방 70 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0 돐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한 조국과 인민의 장한 딸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전체 군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주시였다.

이 경기 전 과정을 보아주시고 여러차례 축하전문도 보내주시면서 백두의 담력과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그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녀자축구선수들이 또다시 우승의 영예를 지닐수 있었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제무대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체육인들은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과시한 개선장군들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가시여 직접 맞이해주시며 각별한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고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만점짜리 공연

주체 104(2015)년 9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태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를 관람하시였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게 된 출연자들의 가슴은 무한한 긍지와 영광으로 설레였다. 공연무대에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이 땅우에 청년사랑의 대화원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인적풍모를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공연이 끝난 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오늘 진행한 공연은 우리 당의 70 년력사는 청년중시의 력사, 불패의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력사라는것을 보여준 공연, 당에서 제시한 정책적문제들을 민감하게 반영한 만점짜리 공연, 자신께서 청년들에게 하고싶은 말을 다 담은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공연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선봉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청년전위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진취적이며 무궁무진한 힘과 열정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온 세상에 청춘의 기상과 위력을 떨치며 승승장구해나가고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직접 수여하신 청년동맹기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 9 차대회가 진행되던 나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 9 차대회는 청년동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투쟁전통을 이어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를 시위한 충정의 대회라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모두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하여, 청년강국의 휘황한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처녀어머니》

주체 104(2015)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 위하여 촬영장에 나오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기념사진촬영에 앞서 모범적인 청년미풍선구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소행을 하나하나 들어주시면서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그속에는 《처녀어머니》로 불리우는 장정화동무도 있었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혈육의 정으로 애지중지 키우고있는 그의 소행을 그이께서는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처녀어머니》라는 말은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생겨날수 있다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소행을 상상도 하지 못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청년강국!

주체 104(2015)년 4월 19일이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 1호발전소를 찾으시였다.

발전소일군의 안내를 받으시며 백두산영웅청년 1호발전소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던 그이께서는 커다란 만족속에 환히 웃으시였고 청년건설자들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금방석에 앉히고 저 하늘의 별을 따다가 그들의 가슴에 달아주고싶은 심정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1호발전기앞에서 발전기의 효률도 알아보시고 점검보수를 비롯한 설비관리를 정상적으로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심을 주신 그이께서는 2호발전기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발전기의 고르로운 동음에 귀기울이기도 하시고 발전소의 한 일군과 다정히 이야기도 나누시던 그이께서는 발전소건물밖으로 나가시였다.

동행한 일군들도 힘있게 걸음을 내짚으시는 그이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문밖에서는 발전기의 동음도 들리지 않아 주변은 고요하였다.

밖으로 먼저 나오신 그이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발전소옆에 자리잡은 변전소쪽으로 얼마간 걸어가시였다. 앞서 걸으시던 그이께서는 뒤따르는 일군들에게로 돌아서시였다.

청년강국!

격동적으로 울리는 그이의 음성은 봄우뢰처럼 산골의 고요를 깨치며 퍼져나갔다. 참으로 력사적인 순간이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는 사상강국, 군사강국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라는데 대하여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방금 백두산영웅청년 1 호발전소로 오면서 자신께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과 애국의 마음이 뜨겁게 깃들어있는것들을 보며 거기에서 힘을 얻은데 대하여 감동깊이 이야기하시고 기특하고 대견한 우리 청년들을 높이 평가해주고싶은 심중도 터놓으시였다.

청년들은 책을 가까이해야 한다

언제인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일떠선 정양소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도서실을 보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를 비롯한 중요대상공사들에 동원된 청년들의 교양에 필요한 도서들을 많이 찍어 내려보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청년들이 쉴참에도 책을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청년들이 책을 가까이하면 나라의 진보가 앞당겨지고 청년들이 책을 멀리하면 나라의 전진이 떠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청년들이 쉴참에도 책을 놓지 않는 버릇을 붙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금별로 빛내주신 위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이 한창이던 주체 104(2015)년에 발전소에 세울 영웅청년기념비형성도안을 보아주시였다.

당시 형성도안에는 기념비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발휘된 청년들의 위훈을 상징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마크를 새겨넣게 되여있었다.

형성도안을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 세울 영웅청년기념비에는 청년동맹마크가 아니라 공화국영웅메달을 형상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백두대지에 새겨진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형성도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을 받들어 충성의 한길을 걸어온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귀중하고 대견하시여 그들의 위훈을 금별로 빛나도록 해주시였던것이다.

백두전구에 울려퍼진 총공격명령

주체 104(2015)년 4월 19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1호, 2호발전소의 전기생산능력을 가늠해보시고 필요한 로력과 자재, 설비도 하나하나 타산해보시며 발전소건설을 조선로동당창건 70돐까지 끝내기 위한 공사목표와 공정계획도 친히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철도수송을 기본으로 하면서 륙로수송과 배수송을 배합하는 문제와 발전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면서 발전소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작전안을 펼쳐주시였다.

이와 함께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즉시에 파견하여 군민협동작전을 펴되 철저히 청년동맹이 주인이 될데 대해서와 발전소건설진행정형을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세울데 대해서 밝혀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백두전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조직지휘밑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당창건 70돐까지 끝내기 위한 총공격전이 벌어지게 되였다.

자력갱생이 제일이다

주체 104(2015)년 4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산이고 사랑의 젖줄기이며 조국의 만년재부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자는것을 청년돌격대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시였다.

그날 그이께서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깊이 새겨주신것은 자력자강의 뜻이다.

물자들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정양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기와 알, 남새를 청년돌격대에서 자체로 꾸린 축산기지를 비롯한 후방기지들에서 생산보장하고있다는데 대단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늘 말하지만 자력갱생이 제일이라고 의미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정양소의 창고들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부식물창고에 있는 참나물과 고사리를 비롯한 산나물들은 청년돌격대원들이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짬짬이 채취한것들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돌격대원들이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자력갱생의 정신이 강하다고, 생활력이 있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최상의 믿음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나서 1 호발전소언제공사를 지난 8 월 28 일 청년절을 맞으며 완공하였는데 백두전구에서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용타고, 지난 4 월 자신께서 발전소건설장을 다녀간 때로부터 120 여일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림으로써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였다고,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신화이라고 그리도 대견해하시면서 그이께서는 몸소 발전소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해주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뜨거운 은정

언제인가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앞에 난관과 시련이 막아나설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스스로 찾아와 인생의 첫출발을 떼고 백두대지에 애국의 삽을 박고 애국의 피와 땀을 바치며 청춘대학졸업증을 받은 청년들이 기둥으로 서있었다고, 이런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심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당창건 70 돐경축 열병식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종대를 참가시킬데 대한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당창건 70 돐경축 열병식장으로는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기상을 떨쳐

온 피끓는 청춘들의 부대인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종대가 《전민무장화》라는 글발을 새긴 기발을 펄럭이며 로농적위군종대의 선두에서 나아가게 되였다.

혁명사적교양실이 위훈전시관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 104(2015)년 9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 전망대지구에서는 혁명사적교양실건설이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흙먼지가 날리는 공사장을 찾으시여 공사정형에 대하여 일일이 료해하시던 그이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발휘한 청년들의 위훈은 우리 당력사에 긍지높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중에 있는 혁명사적교양실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으로 명명해주시였다.

그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준공식에서도 그이께서는 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귀중한 재보인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가 창조되였다고, 천지의 맑은 물처럼 순결하고 백두의 이깔처럼 강직한 이런 정신, 이런 문화가 온 나라 청년대오에 차넘치게 되면 백두산청년강국의 위력은 백배해질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당은 여기에 청년돌격대원들의 기념비와 위훈전시관을 세워 그 공적을 길이 전하며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를 답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현지에서 백두청춘들의 정신과 문화를 따라배우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은 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영웅적위훈을 새겨주는 사상교양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확고한 결심

주체 104(2015)년 10월 3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 나오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준공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그이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준공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청년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우리 당의 위대성이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뜻깊은 10월의 하늘가에 높이 울린 청년중시사상 만세의 환호소리는 청년들을 변질와해시켜 우리의 사회주의를 허물어보려는 적들의 책동을 짓부시는 무서운 뢰성으로 될것이며 전 인민적총진군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는 우렁찬 신호탄총성으로 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총진군대오의 전렬에 내세워 강성국가의 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 3호발전소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에 전시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바라보기만 해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절로 난다고, 백두산영웅청년 3호발전소까지 건설됨으로써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기쁜것은 삼지연군의 전력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된것보다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청년들이 시대의 영웅, 창조의 거인들로 자라난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북방의 혹한속에서 얼어붙은 대지를 청춘의 뜨거운 심장으로 녹이면서 높고 험한 심산계곡에 만년언

제를 쌓아가며 귀중한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쳤다고, 백두대지에 조선청년운동력사에 가장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긴 그들의 위훈은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제일 큰 힘이라시며

주체 105(2016)년 1 월 19 일, 그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청년동맹의 명칭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선포하도록 하시고 조선청년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수여해주신 20 돐이 되는 날이였다.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청년운동사적관을 찾으시였다.

청년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내세워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으시고 사적관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한곳에서 문득 발걸음을 멈추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84(1995)년 10 월 10 일 청년전위들에게 혁명의 계주봉인 홰불봉을 넘겨주시는 영상사진문헌과 사적물앞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숨결과 체취가 그대로 슴배여있는 사적물에서 이윽토록 시선을 떼지 못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한 일군이 장군님으로부터 청년들을 대표하여 홰불봉을 넘겨받은 주인공들에 대하여 설명해드리였다.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시던 그이께서는 세계를 둘러보면 어느 나라나 청년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혁명의 계주봉을 넘겨받아 주체혁명위업의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다른 나라의 청년들이 개인의 향락과 영화를 부르짖으며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에 물젖어 나라를 망쳐먹을 때 제일 어렵고 힘든 부문인 탄광으로, 광산으로, 농장벌로, 새로운 개발지로 달려나간 조선의 미더운 청

년들이였다. 조선청년들을 대표하여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홰불봉을 넘겨받은 녀동무도 평양에서 자라난 처녀였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온천군 금당협동농장(당시)으로 탄원하였었다.

그의 소행이 그리도 대견하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훌륭한 사로청원이라고, 당조직에서 이 소행을 높이 평가해주며 일을 잘하도록 돌봐주어 훌륭한 일군이 되도록 하자고 뜨겁게 교시하시면서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였다.

조선청년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어려있는 영상사진문헌과 사적물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우리 당의 자랑이고 제일 큰 힘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백두청춘들이 받아안은 크나큰 믿음

주체 105(2016)년 4 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 3 호발전소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지휘성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나서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미더운 백두청춘들이 백두산영웅청년 3 호발전소건설을 당 제 7 차대회를 앞두고 완공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에 전시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도 그이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바라보기만 해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절로 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제일 기쁜것은 삼지연군의 전력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된것보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청년들이 시대의 영웅, 창조의 거인들로 자라난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이 지구를 들면 그 지구를 계속 돌리겠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 3 호발전소를 찾으신 주체 105(2016)년 4 월 어느날이였다.

한 청년일군이 모두의 심정을 담아 그이께 돌격대원들은 세계를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원수님 믿음이면 지구를 든다는 신념을 안고 창조하였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드리였을 때였다.

조선의 수백만 청년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올리는 그의 이야기를 정깊이 들어주신 그이께서는 청년들이 지구를 들면 자신께서는 그 지구를 계속 돌리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그날은 조선청년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세계를 움직이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와 그이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는 신념으로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조선청년들사이에 열화같은 정이 굽이쳐흐른 잊지 못할 날이였다.

천군만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 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장에서 하신 연설의 구절구절이 지금도 조선인민의 귀전에 들려오고있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나아가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강철의 청년대오가 있기때문이다.

이 뜻깊은 말씀에 조선청년들을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보배중의 보배로 극진히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절세위인의 열화같은 사랑, 청년들을 굳게 믿고 이 땅에 승리와 번영을 안아오시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천군만마,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

새를 이룬 수백만 청년대군을 가진 사회주의조선의 무궁무진한 힘이 어려있다.

무려 20상이나 되는 기념사진!

주체 111(2022)년 5월 2일부 《로동신문》을 펼쳐든 조선사람들은 너나없이 깜짝 놀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한 평양시안의 대학생, 근로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실로 충격적인 소식이였다.

《로동신문》을 정히 펼치며 사람들은 여러 지면을 꽉 채운 영광의 기념사진들을 한상한상 세여보기 시작했다.

무려 20상이나 되는 기념사진!

크나큰 놀라움과 격정이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밀물처럼 차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대학생들과 근로청년들, 그들은 열병광장을 보무당당히 누벼간 일당백군인들도, 전 세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일으킨 주체무기들의 개발을 위해 온넋을 바친 과학자, 기술자들도 아니였다. 열병식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김일성**광장 바닥을 꽉 채우고 환호의 꽃물결을 펼치면서 행사분위기를 한껏 돋구는 청년들이였다.

희한한 열병식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눈가에 너무도 평범하게 비쳐지고 지어는 무심히 스쳐지났던 그들이 온 나라 인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영광의 단상에 오르게 된데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4월 30일 오후 당중앙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친히 걸어오신 전화를 받게 되였다.

어떤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실가 하고 생각하며 정중한 자세로 송수화기를 받쳐든 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 돐을 경축하는 열병식행사에서 바닥대렬에 동원되였던 청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하신다는 말씀에 그만 자기 귀를 의심했다. 혹시 잘못들은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이께서는 그의 심정을 헤아리신듯 지난 시기에 있어본적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것이 우리 청년들의 수고도 치하하고 그들의 혁명열, 애국열, 투쟁열도 고무격려해주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로부터 얼마후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를 통하여 열병식행사에 동원되였던 대학생들과 근로청년들의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나서 처음 전화를 거시였던 책임일군을 다시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하신 어조로 래일 사진을 찍자고, 그래서 이번 열병식행사에 동원되여 조직성과 규률성, 단결력과 예술성을 힘있게 과시하는데 이바지한 우리 청년들을 높이 평가해주자고, 청년들이 자기들이 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한 **김일성**광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더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기념촬영장소도 친히 정해주시였다.

조선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하시는 그이의 은정깊은 말씀은 계속되였다. 이번 열병식행사에 참가한 수만명 청년들의 대다수가 대학생들이라는데 래일 기념촬영에 한명도 빠짐없이 다 데려오라는 간곡한 당부도 하시고 기념촬영대인원편성과 촬영위치에 대해서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5 월 1 일 무려 20 번이나 자리를 옮겨가시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여기에도 조선청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이의 뜨거운 정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사실 일군들은 지난 시기와 같이 행사참가자모두가 한번에 다같이 기념사진을 찍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조선청년들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청년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보시는 그이께서는 수만명의 청년들을 20 번에 나누어 찍자고 하시면서 오전에 한차례, 오후에 또 한차례 찍으면 되지 않겠는가고 친히 가르치심을 주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온 나라 인민이 즐겁게 휴식하는 5.1 절 온 하루를 청년들을 위해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로고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 돐을 일심단결의 대축전으로, 국력시위의 활무대로 장식하는데 기여한 평양시안의 대학생들과 근로청년들을 높이 평가한다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는 청년들의것이고 청년들자신의 손으로 당겨와야 하는 성스러운 애국위업이라고,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을 더없는 영예로, 자랑으로 간직하고 귀중한 청춘시절을 충천한 혁명열, 애국열, 투쟁열로 수놓아가는것은 이 세상 그 어느 사회에서 찾아볼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 청년들특유의 자랑스러운 풍모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를 진감시킨 5.1 절의 기념촬영충격,

그이께서는 단순히 청년들의 수고만을 헤아려 기념사진을 찍으신것이 아니였다.

그들을 열병식참가자들, 경축행사참가자들과 같은 영광의 단상에 올려세워주신 여기에는 조선청년들을 조국의 륭성부흥을 위한 앞날의 주인공으로, 역군으로 믿고 내세우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있다.

격동적인 연설로 고무격려해주시고

주체 112(2023)년 2 월 25 일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착공식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용감성과 위훈으로 빛나는 우리 나라 청년운동사에 또 하

나의 긍지높은 페지를 아로새기게 될 현대적인 새 거리건설의 의의깊은 착공을 청년탄원자들과 함께 선포하게 된 기쁨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청춘기념비를 세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불멸할 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온 나라의 돌격전구마다에 파급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우리 시대 사회주의청년전위들이 지닌 불굴의 특질과 투쟁기개의 상징으로, 고난을 박차고 무쌍하게 일떠서는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의 한 부분으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위대한 정신을 더욱 승화시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행정에서 청년들의 애국열의를 다시금 높이 발휘할수 있는 새 활무대, 거창한 청년판을 펼쳐놓기로 한 당의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가 시대의 부름과 인민의 기대에 영웅적투쟁으로 보답하여 수도의 새 거리를 훌륭히 건설할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청년의 값높은 명예를 위하여,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의 수도 평양을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을 기념하여 몸소 첫삽을 뜨시고 발파단추를 누르시였다.

그이께서는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을 더없는 영예로, 자랑으로 간직하고 당의 구상실현을 위함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우리 청년들의 정신상태와 기세가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뜨거운 청춘의 혈기와 열렬한 애국충심으로 우리 위업을 옹위하는 신념의 억척성새를 높이 쌓아올린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청년들이 오늘의 장엄한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골간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해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수도 평양을 위하여!》라는 신성한 의무와 시대의 부름을 깊이 간직하고 웅장화려한 새 거리, 부흥강국의 변혁적실체를 보란듯이 일떠세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미더운 청년전위들을 뜨겁게 고무격려하시였다.